

경복궁, 전주 전통한지로 새 옷 입다

전주시·문화재청·신협중앙회, 경복궁 흥복전서 창조지 바르기 행사 진행

조선왕조의 정궁이자 한국 전통미를 간직한 건축물인 경복궁이 전주한지로 만든 새 옷을 입었다.

전주시와 문화재청, 신협중앙회는 2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지속 보존하기 위한 '경복궁 창조 전주한지 바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문화재청, 신협중앙회가 지난 2020년 체결한 전통한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자원봉사 및 일반인 체험 행사로 행해지던 기존 '창호 바르기' 프로그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창조 보수에 전주 전통한지를 사용하는 '전통한지 바르기' 행사로 펼쳐지게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이었던 전주한지에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지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풀칠은 한 뒤, 이를 다시 문틀에 바르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다.

전주산 다펀나무로 제작된 전통한지는



전주시와 문화재청, 신협중앙회는 2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지속 보존하기 위한 '경복궁 창조 전주한지 바르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복궁 뿐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조선시대 4대 궁궐과 종묘의 창조 보수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전주한지가 활용된 만큼 전주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전주한지의 판로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20년 11월 문화재청, 신협중앙회와 함께 경복궁 흥복전에서 4대 궁궐·종묘 전통한지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펀나무 6000kg을 무상(창호지 6600장)으로 지원하고, 신협중앙회는 1억 원 상당의 전주한지를 구매해 4대 궁궐과 종묘의 창조 보수 작업을 지원했다. 또 문화재청은 신협중앙회를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위촉해 창조 보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전통한지가 이번 경복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창조 보수에 사용되는 등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프랑스 투르르 박물관과 이탈리아 지류전문기관에서 복원 전문가로 국제 인증을 받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지는 과거 조선왕실 진상품이자 중국과의 외교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020년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류 전문기관인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로부터 문화재 보존·복원용으로 적합하다는 유효성 인증서를 획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인생 후반기 계획 '50+ 인생학교'에서

전주시,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입학식 가져

전주시는 지난 19일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50+ 인생학교'의 입학식을 가졌다.

'50+ 인생학교'는 자신의 인생 전반기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생 후반기를 계획해 보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생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입학식 △마음열기를 비롯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워크숍 △50+ 인생 그리고 경제와 건강을 주제로 한 주제포럼 △50+ 인생학교 8기 자치회가 기획하는 수학여행 △인생후반기 로드맵 발표 △졸업식 △사회공헌활동(연탄배달)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입학식에서는 김시은 교장의 사회로 입학생들의 자기소개 및 마음 열기 시간이 진행됐다.

김시은 교장은 "40대~60대 시민들이 막연하게 인생 후반기를 고민하기보다는 50+ 인생학교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 후반기를 계획해 보기를 바란다"며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2025년까지 유지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 전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았다.

2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22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전주 권역내 중증 응급환자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최종 치료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대병원 측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 전문의 인력확보, 응급진료 병상 및 입원실 확보, 응급의료 전용장비 확충 등 시설과 장비, 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선제적격리실과 음압 및 일반격리실 운영, 응급실내 감염관리 강화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와 치료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특히 응급환자의 진료체계 강화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응급의료

시스템 및 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후속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진료관련 인센티브 지급, 응급환자 당직의사 호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증응급환자 표준 진료지침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표의 질 관리 등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원 하이라인을 구축하고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연계 및 119 구급대와 상호 협력 체계 강화, 중증응급환자 집중치료 및 경증환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농

어촌 취약지역 협력체계 등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라인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과 정기적 재난훈련 실시 등의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교육과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 등 권역 내 교육에도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그동안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시설장비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상의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 도민들이 믿고 찾는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푸른전주, '정원문화특강' 시민 참여율 높아

전주시와 (사)푸른전주가 시민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2022년 정원문화특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18일 장형태 대한중묘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된 정원문화특강의 사진 수강생 모

집이 모두 조기에 마감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정원문화특강은 총 9차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5회를 남겨두고 있다.

9월 특강으로는 22일 윤호준 '조경하다 열음' 대표의 '정원의 조성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있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이정철 보성그룹 (주)영 정원관리팀장의 '사계절 정원관리 특강(7차)'과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의 '세계의 정원도시를 만나다' 강연(9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연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다 양하고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천리포수목원(6차)과 하동 불광동정원, 구례 쌍산

재(8차)를 방문하는 '아름다운 정원탐방'도 진행된다.

시 천만그루정원도시와 관계자는 "2022년 정원문화특강을 통하여 정원 조성부터 관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탐방 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정원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비어있는 가로수 자리 새로운 나무로 채운다

전주시가 고사목이 발생해 비어있는 가로수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옮겨심기로 했다.

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도심 속 가로수가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과 11월까지 보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배수 불량 및 병해충 감염, 노목화 등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 등으로 비어있는 가로수 식재지에 건강한 수목을 심어 녹음량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요 사업대상지는 잠송배기로 등 13개 노선으로, 시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가로수 결주지를 우선 식재할 예정이다.

시는 식재되는 수목의 경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토양개량과 멀칭 등 생육환경 개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를 감싼 분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빠르게 활착할 수 있도록 비료 주기와 물 주기 작업 등 관리 및 꾸준한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인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과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산소배출 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많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수목 보충 식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녹지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